

소아·청소년 구강건강 도모

무주군보건의료원, 소아치과 전문의 배치 맞춤형 진료서비스 제공

무주군보건의료원(원장 흥찬표)에 소아치과 전문의(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 이목을 끌고 있다.

소아·청소년들의 구강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개설돼 5월부터 진료를 시작한 치과에서는 이들의 구강 상태에 맞는 예방치료를 비롯해 증상별 치료와 올바른 치아관리 요령을 공유하는 등의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제로 구강관리 및 교정 등의 진료 상담과 스케일링, 발치, 치솔질 등 구강관리 교육,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와 실란트(치아 홈메우기) 등의 치과 진료가 진행돼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읍의 김 모 씨(43세)는 “소아치과 진료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 데리고 들렀는데 설명도 자세하게 잘 해주시고 진료도 만족스럽게 받았다”며 “소아치과 전문의 있는 곳으로 가려면 일 부터 도시로 나가야하기도 했고 진료비도 비싸서 부담이 컸는데 이제부터는 마음 편히 다닐 수 있겠다”고 전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소아치과 진료는 2층 치과실에서 하며 치과에는 치과유니트를 비롯한 방사선 활용기과 광중합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는 치아우식증(충치)에 취약한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5곳 총 3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암치과교과 불소용액 가글을 지원하기도 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박인자 과장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료 인력의 효율적

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열악한 의료여건을 고려한 이용자 맞춤형 전문 진료 서비스와 친절서비스 강화에 주력해 의료원 이용률과 만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보건의료원에는 내과와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치과, 소아청소년과, 통합진료, 응급실 등 7개 과목이 개설돼 8명의 전문의를 비롯한 총 10명의 의사가 외래진료를 보고 있다.

이외 간호사와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CT기를 비롯한 초음파기, 끌밀도측정기, 위조영찰기, 유방촬영기 등 최신 장비도 구비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올바른 혈압 측정 캠페인 전개

진안군보건소, 오늘 진안시장서 혈당·콜레스테롤 검사도 병행

진안군보건소(소장 송미경)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19일 진안 시장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혈압 측정 방법 캠페인을 전개한다.

매년 5월 17일은 세계 고혈압연맹이 정한 ‘세계 고혈압의 날’이다. 고혈압은 전 세계에서 매년 1,000만 명이 사망하여 세계보건기구가 사망 위험요인 1위로 발표한 질환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로 매우 흔한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2017년 602만 명이던 고혈압 환자가 2021년 701만 명으로 16.5%로 증가했으나 20대와 30대 증가율은 각각 44.4%와 26.6%로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20~30대의 고혈압 인구율은 19%로 전체인구율 69.5%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한다. 따라서 나이가 젊다고 안심할 수 없는 질환이 고혈압이다.

더 큰 문제는 고혈압 환자가 늘면서

합병증인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 유병률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20~30 연령대의 심혈관질환 환자 수는 2017년 대비 39.7%, 뇌혈관질환은 23.1% 늘었다고 한다.

그러나 고혈압 환자의 절반은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만큼 정기적이고 정확한 혈압 측정으로 조기에 진단, 치료해야 한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고지방, 고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저염, 체소 위주의 식습관 등의 생활습관 개선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에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19일 진안 장날 유동 인구가 많은 진안시장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혈압 측정 방법 캠페인을 하며 혈관 건강의 지표인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도 같이 할 예정이다.

진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군민들이 올바른 혈압 측정 방법을 익혀 고혈압 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장애인체육회 탁구선수단 국제대회서 은·동메달 획득

장수군장애인체육회 탁구선수단이 2023 슬로베니아 오픈대회에서 여자 단식 동메달과 남자 복식 은메달을 획득했다.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슬로베니아 라스코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여자 단식에 출전한 이근우 선수가 동메달을, 남자 복식에 출전한 백영복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하며 장수군장애인탁구선수단이 국가대표 랭킹점수 획득했다.

장수군장애인체육회 탁구선수단은 2023년 장애인탁구 국제 및 국내대회의 워터, 포인트 점수를 획득하고, 국제대회의 경험을 쌓아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제4회 향자우 아시안 패럴림픽에 도전할 계획이다.

또한 장수군장애인탁구선수단은 향후 7월 태국 파타야에서 개최되는 오픈대회 등 국제대회에 참가할 예정으로, 202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파리 패럴림픽 출전을 위해 국제무대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훈식 장수군장애인체육회장은 “장수군 선수들이 탁구를 통해 국제무대에서도 대한민국과 장수군을 널리 홍보해주시고, 건강하게 경기를 마치고 돌아와 줘 기쁘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하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여름 휴가철 대비 시설 안전성·불법 여부 등 확인

장수군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과 병행해 하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시설의 안전성과 불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은 농촌 민박 46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9개소, 관광농원 3개소다.

군은 안전점검 실시 후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각적인 현장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사업장이 자발적인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배부해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선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관내 농촌관광시설을 사용하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군에서도 농촌관광시설을 활용해 많은 관광객들이 장수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및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 민박·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 협의회-진안군 여성일자리센터, 협약 체결

진안군은 18일 홍삼한방농공단지 협의회가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고용활성화를 위해 진안군여성일자리센터와 지역산업 맞춤형 업무협약식을 추진했다.

이날 협약식으로 기업들이 업체별 필요한 여성 인력들을 사전에 맞춤형으로 양성할 수 있고 관내 여성들은 취업이 연계되는 상생협력체계가 마련됐다.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는 2009년에 준공되어 현재 35개 제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CJ웰케어, 농업회사법인 늘푸른, 더做梦 등 진안군 내에 서는 비교적 큰 기업들이 가동 중에 있다.

최근 홍삼한방농공단지 협의회는 지난 4월 국세청에 비영리단체 범인등록을 완료하였고, 농공단지내 입주기업



진안군일자리센터는 지난 5월 8일에서 11일까지 한국한방고등학교 실습동에서 ‘성공취업! 면접역량강화’ 특강을 열었다.

‘성공취업! 면접역량강화’ 특강 운영

진안군일자리센터, 한국한방고등학교 취업 역량 강화 위해 진행

진안군일자리센터(이하 센터)가 관내 고등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한방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지난 5월 8일에서 11일까지 한국한방고등학교 실습동에서 ‘성공취업! 면접역량강화’ 특강을 열었다.

특강에는 한국한방고등학교 재학생 10명이 참여해, 스피치 교육, 1분 자기 소개, 올바른 발성법, 모의면접 등에 대해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높은 민족도를 보였으며 면접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기회가 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